

2026  
완성

## 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4 | 남염부주지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박생**(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유생.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인물)은 예전부터 늘 불교나 무속 신앙, 귀신 이야기에 의심을 품어 왔으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중용(中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고, 『주역(周易)』의 「계사전」을 자세히 살핀 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부하게 되었다.(유교 경전을 통해 이단에 대한 생각을 자부함.) 그럼에도 박생은 사람됨이 순박하고 중후한 까닭에 승려들과도 교유를 끊지 않아, 한유가 사귀었던 태전이나 유종원이 사귀었던 손 상인 같은 승려 두세 사람을 가까이했다. 승려들 역시 선비와 교유하기를 해원이 중병과 뇌차종을 사귀고 지둔이 왕탄지와 사안을 사귀듯이\*하여 박생과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유교와 불교의 차이를 신경 쓰지 않고 교유함. 박생이란 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에 해당 부분이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유교 경전을 탐구하며 이단에 대한 생각을 정리함.

하루는 박생이 승려에게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말했다.

“천지(天地)는 하나의 음양(陰陽)일 따름이오. 그러니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을 리 있겠소? 필시 허튼 얘기일 거요.”(유교적 음양의 원리에 따라 사후 세계를 부정함.)

승려에게 묻자 그쪽 역시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한 채 죄를 짓거나 덕을 쌓으면 각각 그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말로 대꾸할 뿐이었다. 박생은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박생은 일찍이 「일리론(一理論)」이라는 글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며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자 했다.(이단을 멀리하며 유교의 가르침을 따름.)

▶ 유자로서의 신념을 지키고자 노력함.

[중략 부분 줄거리] 이단설을 부정하던 박생은 어느 날 『주역(周易)』을 읽다가 **잠이 들어**(‘현실-꿈-현실’의 몽유 구조. 이 작품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남쪽 **염부주(炎浮洲)**(박생이 간 공간. 박생이 부정하던 사후 세계이므로 모순된 공간임. ‘염부주’의 공간적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 가게 되고, 그곳의 임금인 **염마(饑摩)왕**을 만나 공자와 석가, 귀신에 관한 설 등에 대해 **대화**(염마왕과 박생의 대화 - 작가의 정치관, 사회관, 이상적 사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함. 이 작품의 전개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염마왕’과 ‘박생’의 대화로 전개됩니다.)를 나눈다. 박생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 물으며, 죽은 사람의 천도(薦度)를 위한 재(齎)에 대해 말하자 염마왕은 거짓되고 망령된 일이라며 놀란다.

“사람이 죽으면 **정기(精氣)**(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가 흩어져 혼(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魄)은 땅속으로 내려가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소. 그러니 어찌 혼백이 저승에 머물 수 있겠소? 물론 원한을 품은 혼령이나 비명횡사한 귀신이 제명에 못 죽어 자신의 기운을 펴지 못하고, 모래밭 싸움터에서 슬피 울거나 원한 품은 집에서 절절히 우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하오. 이들 혼령이나 귀신은 무당에게 깃들어 역술한 사연을 호소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원망을 하소연하기도 하오. 그러나 비록 일시적으로 정신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無)로 귀결되고 마니, **죽은 사람이 형체를 빌려 저승에 가고 또 거기서 형벌을 받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소?**(죽은 이의 혼백이 저승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을 강조함.) 이런 일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군자라면 마땅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오.

부처에게 재를 올리고 시왕(十王)\*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같은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재’라는 건 맑고 깨끗함을 이르는 말이고, ‘왕’이라는 건 존엄함을 일컫는 말이고. 왕이 수레를 요구하고 금을 요구한 일은 『춘추』에서 비난받은 바 있거니와, 재를 올리며 금과 비단을 쓴 일은 한나라와 위나라 시대에 시작되었

2026  
완성

## 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4 | 남염부주지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박생은 예전부터 늘 불교나 무속 신앙, 귀신 이야기에 의심을 품어 왔으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중용(中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고, 『주역(周易)』의 「계사전」을 자세히 살핀 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박생은 사람됨이 순박하고 중후한 까닭에 승려들과도 교유를 끊지 않아, 한유가 사귀었던 태전이나 유종원이 사귀었던 손 상인 같은 승려 두세 사람을 가까이했다. 승려들 역시 선비와 교유하기를 해원이 종병과 뇌차종을 사귀고 지둔이 왕탄지와 사안을 사귀듯이\*하여 박생과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

하루는 박생이 승려에게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말했다.

“천지(天地)는 하나의 음양(陰陽)일 따름이오. 그러니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을 리 있겠소? 필시 허튼 얘기일 거요.”

승려에게 묻자 그쪽 역시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한 채 죄를 짓거나 덕을 쌓으면 각각 그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말로 대꾸할 뿐이었다. 박생은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생은 일찍이 「일리론(一理論)」이라는 글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며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자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단설을 부정하던 박생은 어느 날 『주역(周易)』을 읽다가 잠이 들어 남쪽 염부주(炎浮洲)에 가게 되고, 그곳의 임금인 염마(焰摩)왕을 만나 공자와 석가, 귀신에 관한 설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박생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 물으며, 죽은 사람의 천도(薦度)를 위한 재(齋)에 대해 말하자 염마왕은 거짓되고 망령된 일이라며 놀란다.

“사람이 죽으면 정기(精氣)가 흩어져 혼(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魄)은 땅속으로 내려가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소. 그러니 어찌 혼백이 저승

에 머물 수 있겠소? 물론 원한을 품은 혼령이나 비명횡사한 귀신이 제명에 못 죽어 자신의 기운을 펴지 못하고, 모래밭 싸움터에서 슬피 울거나 원한 품은 집에서 절절히 우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하오. 이들 혼령이나 귀신은 무당에게 깃들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원망을 하소연하기도 하오. 그러나 비록 일시적으로 정신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無)로 귀결되고 마니, 죽은 사람이 형체를 빌려 저승에 가고 또 거기서 형벌을 받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소? 이런 일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군자라면 마땅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오.

부처에게 재를 올리고 시왕(十王)\*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같은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얘지요. ‘재’라는 건 맑고 깨끗함을 이르는 말이요, ‘왕’이라는 건 존엄함을 일컫는 말이오. 왕이 수레를 요구하고 금을 요구한 일은 『춘추』에서 비난받은 바 있거니와, 재를 올리며 금과 비단을 쓴 일은 한나라와 위나라 시대에 시작되었소. 생각해 보시오. 맑고 깨끗한 신이 속세 인간의 공양을 받을 리 있겠소? 존엄한 왕이 죄인의 뇌물을 받을 리 있겠소?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상에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이런 일 또한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 선비라면 마땅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오.”

박생이 또 물었다.

“윤회가 그치지 않아 이승에서 죽은 뒤 저승에서 산다는 말에 대해 여쭙어볼 수 있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정령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윤회가 있을 듯도 하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령도 흩어져 사라지고 마오.”

박생이 물었다.

“임금께서는 어떻게 이런 이역(異域) 땅에서 왕이 되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임금께 충성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해 도적을 토벌했는데, 그때 이렇게 맹세한 일이 있소.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도적을 모두 죽이리라!’

죽어서도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스러운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기에, 이런 흉악한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것이요. 지금 이 땅에 살며 나를 우러르는 자들은 모두 전생에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등 온갖 간사하고 흉악한 짓을 벌인 무리들이라오. 이들은 이곳에 살며 나의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소. 정직하고 사심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 땅에서는 하루도 임금 노릇을 할 수 없소.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고상하여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남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달인이라고 들었소.

그럼에도 세상에 뜻을 한번 펼쳐 보이지 못했으니, 그야말로 천하의 보배로운 옥이 황야에 버려지고 연못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과 같은 신세구려. 훌륭한 장인을 만나기 전에야 누가 천하의 보물을 알아볼 수 있겠소? 참으로 안타깝소!

나 역시 운수가 다해서 곧 이 세상을 뜰 운명이고, 그대 또한 타고난 수명이 이미 다해서 땅에 묻히게 되리니,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이 그대 말고는 누가 있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잔치를 열어 흥겹게 즐겼다. 그러던 중에 왕이 박생에게 삼한(三韓)의 역대 왕조가 흥하고 망한 이유를 물었다. 박생이 역대 왕조의 흥망사를 하나하나 진술하다가 고려가 창업하게 된 연유를 언급하기에 이르자, 왕이 거듭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가진 자는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되오. 백성이 비록 두려워하여 명령에 따르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반역할 마음을 품어 시간이 흐르면 결국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덕 있는 자는 힘으로 군주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소. 하늘이 비록 자상한 말로 사람을 깨우치지는 않지만 시종일관 일을 통해 보여 주거늘, 이를 보면 하늘의 명(命)이 엄하다는 걸 알 수 있소.

① 무릇 나라는 백성의 것이요, 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천명이 이미 임금에게서 떠나고 민심이 이미 임금에게서 떠나간다면, 비록 몸을 보전하고자 한들 어찌 보존할 수 있겠소?”

또 박생이 역대 제왕들이 이교(異敎)\*를 숭상하다

가 재앙을 당하기에 이른 일을 말하자, 왕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백성이 태평가를 부르는데도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드는 것은 하늘이 임금에게 언행을 삼가라고 거듭 경고하는 것이요, 백성의 원성이 드높은데도 상서로운 징조가 보이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더욱 방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오. 역대 제왕들이 상서로운 징조를 보던 날에 백성이 편안하였소, 울부짖으며 원망하였소?”

- 김시습, 「남염부주지」

\* 「중용」, 『주역』의 「계사전」: 유학의 경전을 이룸. 『중용』은 사서(四書)의 하나. 『주역』은 오경(五經)의 하나로. 「계사전」은 『주역』의 원리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

\* 한유가 사귀었던 ~ 손 상인 같은: 한유와 유종원은 당나라의 문장가들, 태전과 손은 이들과 가까이 사귀어 고승(高僧)을 말함 ‘상인’은 승려를 일컫는 말임.

\* 혜원이 종병과 ~ 사안을 사귀듯이: 혜원과 지문은 동진(東晉)의 이름난 고승을, 종병, 뇌차종, 왕탄지, 사안은 이들과 가까이 사귀어 이름난 문사(文士)를 말함.

\* 「일리론」: 천하의 이치는 하나임을 밝히는 글

\* 시왕: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한다는 저승에 있는 열 명의 왕.

\* 왕이 수레를 ~ 비난받은 바 있거니와: 유학 오경의 하나인 『춘추』에 왕이 대부를 시켜 수레와 금, 즉 뇌물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옴.

\* 이교: 주장이 다른 학설 여기에서는 불교를 가리킴.

##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박생’은 유교 경전을 탐구한 이후에도 불교와 무속 신앙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했다.
- ② ‘염마왕’은 죄를 지은 혼백은 저승에 머물러 형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천도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③ ‘염마왕’은 자신이 염부주의 왕이 된 것은 생전에 추구하던 신념이 죽어서도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④ ‘박생’은 ‘염마왕’이 덕 있는 자가 힘으로 군주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의 모순적

인 태도를 비판했다.

- ⑤ '염마왕'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때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아첨하여 임금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 2. ㉠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천하에 가히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백성이 있을 뿐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야 함은 홍수나 화재 또는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보다도 더한 것인데 그런데도 윗자리에 앉은 것들은 (백성을) 업신여기고 길들여 가혹하게 부려먹으니 또한 어찌하여 그러한가? (중략) 진나라가 망한 것은 진승과 오광 때문이었고, 한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또한 황건적 때문이었다. 당나라가 쇠퇴하자 왕선지와 황소가 그 틈을 타고 일어나 마침내 백성과 나라를 망하게 한 뒤에야 그쳤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백성들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한 죄과이며 호민이 그러한 틈에 편승하여 뜻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무릇 하늘이 벼슬아치를 세운 것은 백성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지 그 벼슬아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에서 방자하게 눈을 부릅뜨고서 백성의 자유와 권익을 빼앗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진나라, 한나라 말미의 난리는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어쩌다 일어난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다.

- 허균, 「호민론」

- ① ㉠과 <보기> 모두 백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은 천명과 민심을 나라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③ <보기>의 글쓴이는 중국을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은 백성이 곧 하늘이기에 백성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⑤ ㉠과 <보기>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 3. <보기>와 윗글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금수회의록」의 줄거리  
 '나'는 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한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금수회의를 방청하게 된다. 금수회의에서 '반포지효'의 까마귀는 인간들의 불효를 비판하고, '호가호위'의 여우는 외세에 의존하려는 정치의식을 비판한다. '정와어해'의 개구리는 바깥 세상의 정세에 어두운 사람들을 비판하고, '구밀복검'의 꿀벌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속이는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무장공자'의 게가 자신이 창자가 없음을 홍보하던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영영지극'의 파리는 인간의 간사함을, '가정맹어호'의 호랑이를 통해 포악한 정치와 폭력을, '쌍거쌍래'의 원앙새가 나와 인간들의 음란함을 꾸짖는다. 폐회에서 사회자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더러운 존재라고 결론 내리면서 금수회의를 폐회하고, 이를 지켜본 '나'는 꿈에서 깨 인간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한다.

- ① '현실→꿈→현실'로 진행되는 액자식 구성이다.  
 ②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인생무상을 일깨워 주고 있다.  
 ③ 특정 사건보다는 등장인물의 발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가공의 세계에 사회 현실을 투사하고 있다.  
 ⑤ 꿈속의 세계를 통해 작가는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다.

4. <보기>의 ㉠~㉣중, 윗글과 관련이 없는 것은?

<보기>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취유부벽정기’ 등 5편으로 이루어진 한문 소설이다. 「금오신화」는 고려 시대의 설화 문학을 계승하여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확립시켰으며, 이후 소설 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금오신화」의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한국인의 풍속·사상·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점, ㉡실재하지 않는 공간을 배경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 ㉢사건의 구체성이나 인물 간의 갈등이 미약해서 초기 소설로서의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시가 대량 삽입되어 인물의 심리와 분위기를 표현에 독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이념이나 사상 등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보기>를 통해 볼 때, 꿈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남염부주지」는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한문 단편소설이다. 『금오신화』가 창작된 시기는 김시습이 금오산에 은거한 31세에서 36세 사이이다. 이 시기는 그에게 ‘참여적 은둔기’라 할 수 있다. 단종을 폐위하고 들어선 세조 정권을 용납하기 어려워 비록 세상을 등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주 버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양면의 기로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절의와 공명심 그 사이에서 번민하던 김시습은 『금오신화』에서 꿈의 세계를 그린다. 그에게 꿈은 서사적 모티프의 원천이 되었고, 또 허구적 플롯의 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① 종교에 귀의하게 됨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② 부조리한 현실 세계를 벗어난 도피처이다.  
③ 삶의 허무를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위안처이다.  
④ 현실 세계에서 느끼던 욕망과 갈등을 해소하는 출구이다.  
⑤ 욕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게 하는 장치이다.



6. [A]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秋風唯苦吟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世路少知音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네.  
 窓外三更雨 창밖엔 깊은 밤 비 내리는데  
 燈前萬里心 등불 앞에선 만 리 밖으로 마음 향하네.  
 - 최치원, <추야우중(秋夜雨中)>

- ① 타인의 조언을 경시하고, 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② 소수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③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④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정계에 진출하여 국정을 보필하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

7. <보기>를 참고로 하여 윗글이 지어진 시기를 고려하며 감상할 때, 윗글이 갖는 의의로 적절한 것은?

<보기>

김시습 생애  
 16세 : 신동이라고 소문나 세종에게 불려가 총애를 받음. → 성리학을 연구하며 성장  
 21세 : 삼각산 증흥사에서 학문에 정진  
 →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  
 → ‘남염부주지’를 지음, 방랑 생활  
 59세: 부여 무량사에서 쓸쓸하게 죽음.

- ① 정치적 견해 차이의 극복 방안의 모색
- ②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자각과 삶의 의미 포착
- ③ 폭력 정치를 비판하고 왕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
- ④ 인재가 제대로 등용되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고발
- ⑤ 뚜렷한 목적 없이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학문의 자세 비판

8. 윗글을 읽고 토의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해: ‘박생’은 유학자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면서 현실 정치를 백성을 위하는 쪽으로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② 태혁: 유학자인 ‘박생’이 염마왕에게 선위를 제안받게 된 것은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
- ③ 선주: 작가는 ‘염마왕’이라는 가상 인물을 통해 정치 사회 모순을 비판하려는 것 같아.
- ④ 상민: 맞아, ‘박생’과 ‘염마왕’의 문답식 토론의 형식을 통해 작가의 생각이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 ⑤ 형준: 입신양명을 이루지 못한 작가의 모습이 박생에게 투영된 것은 아닐까?

【9~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박생은 예전부터 늘 불교나 무속 신앙, 귀신 이야기에 의심을 품어 왔으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중용(中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고, 『주역(周易)』의 「계사전」을 자세히 살핀 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박생은 사람됨이 순박하고 중후한 까닭에 승려들과도 교유를 끊지 않아, 한유가 사귀었던 태전이나 유종원이 사귀었던 손 상인 같은 승려 두세 사람을 ㉡가까이했다. 승려들 역시 선비와 교유하기를 해원이 종병과 뇌차종을 사귀고 지둔이 왕탄지와 사안을 사귀듯이\*하여 박생과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

하루는 박생이 승려에게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말했다.

“천지(天地)는 하나의 음양(陰陽)일 따름이오. 그러니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을 리 있겠소? 필시 ㉢허튼 얘기일 거요.”

승려에게 묻자 그쪽 역시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한 채 죄를 짓거나 덕을 쌓으면 각각 그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말로 대꾸할 뿐이었다. 박생은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생은 일찍이 「일리론(一理論)」이라는 글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며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자 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염마왕은 ‘죽어서도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스러운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기에, 이런 흉악한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전에 추구하던 신념이 죽어서도 이어진 결과 염부주의 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박생은 ‘유교 경전 탐구 후에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부했다.’ 유교 경전을 탐구한 이후에도 불교와 무속 신앙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니다.

② 염마왕은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근원으로 돌아가 저승에 머물 수 없으며, 천도재는 “거짓되고 망령된 일”이라고 부정했다. 천도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④ 박생이 ‘염마왕’의 말을 듣고 그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판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염마왕은 ‘백성의 원성이 드높은데도 상서로운 징조가 보이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더욱 방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오.’라고 말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때 보인 상서로운 징조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

### 2. 정답 ④

㉠은 나라를 유지하는 데에 민심과 천심을 모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백성의 권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백성이 하늘이 아니라 ‘백성이 곧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① <보기>는 ‘천하에 가히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백성이 있을 뿐이다.’라며 백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역시 ‘나라는 백성의 것이요.’에서 백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은 ‘천명이 이미 임금에게서 떠나고 민심이 이미 임금에게서 떠나간다면, 비록 몸을 보전하고자 한들 어찌 보존할 수 있겠소?’라며, 나라를 유지하는 요소로 ‘천명’과 ‘민심’을 들고 있다.

③ <보기>는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와 같이 중국을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보기>는 허균의 「호민론」으로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올바른 정치 태도를 촉구하는 글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나라는 백성의 것’이라며, 임금은 무엇보다 ‘민심’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 3. 정답 ②

윗글에서 작가는 박생과 염마왕 사이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종교관 및 국가관, 불의한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드러내고 있으나,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금수회의록」은 ‘나’가 꿈속에서 동물들의 발표를 듣고 꿈에서 깨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소설이다. 몽유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인생무상의 내용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윗글은 박생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몽유 구조의 소설이다. <보기> 역시 ‘나’가 꿈속에서 금수 회의를 방청하고, 꿈에서 깨 인간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몽유 구조의 소설이다. 몽유 구조의 소설은, ‘꿈속 이야기는 내화, 현실은 외화’라는 액자식 구성을 가진다.

③ 윗글은 특별한 사건 없이 박생과 염마왕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보기> 역시 동물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금수회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④, ⑤ 윗글에서 박생과 염마왕의 문답이 이루어지는 꿈속 공간은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가공의 세계인 ‘염부주’로 설정되어 있다. 작가는 자신이 현실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과, 비판적 인식을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금수회의’가 열리는 환상적인 꿈속 세계 또한 비현실적 소재를 통해 현실적인 것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고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정답 ④

윗글에서는 인물의 심리와 분위기를 표현하는 ‘시’가 삽입되어 있지는 않다.

① 윗글의 주인공은 경주에 사는 박생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며, 당대 조선의 유생의 모습과, 이단 풍

습 등이 잘 드러나 있다.

② 박생과 염마왕의 대화가 진행되는 공간은 ‘염부주’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후 세계이며, 이를 배경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

③ 특별한 사건 없이 박생과 염마왕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⑤ 박생과 염마왕의 대화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종교관 및 국가관, 불의한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드러내고 있다.

5. [정답] ④

<보기>에서 꿈은 절의와 공명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작가의 소설적 장치임을 밝히고 있다.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박생’은 ‘염마왕’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선위를 제안받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정치적 이상을 꿈을 통해 실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① 박생이 종교에 귀의하고 있지는 않다.

② 꿈속 대화를 통해 불의한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한 도피처로 볼 수는 없다.

③ 꿈속에서 ‘박생’은 ‘염마왕’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공자와 석가, 귀신, 천당과 지옥의 유무 등에 대해 물으며 사상적인 담론을 벌이고 있다. 삶의 허무를 벗어나 일시적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꿈속에서 ‘박생’이 욕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을 깨닫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정답] ④

[A]에는 박생이 뛰어난 인품과 식견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보기>에는 자신의 뜻을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으므로, [A]에 드러난 태도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A]와 <보기> 모두 자만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계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A]와 <보기> 모두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 현실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A]와 <보기> 모두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은 나

타나지 않는다.

⑤ [A]와 <보기> 모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정답] ③

김시습의 생애는 ‘금오신화’의 창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세조의 왕위 찬탈과 폭력 정치를 비난하며 왕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① 윗글에 정치적 견해 차이의 극복을 위해 모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윗글에 인생의 덧없음을 자각하거나, 삶의 의미 포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윗글에 능력이 인정받지 못한 ‘박생’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타나나,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윗글에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학문의 자세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지 않는다.

8. [정답] ①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염마왕이다. 박생이 현실 정치를 백성을 위하는 쪽으로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박생은 염마왕으로부터 ‘이 나라의 임금인 사람이 그대 말고는 누가 있겠소?’라며 선위를 제안받고 있다. 이는 염부주가 박생이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지 못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므로,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작가는 박생과 염마왕의 대화 과정에서 불의한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윗글은 특별한 사건 없이 박생과 염마왕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박생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계에 진출하지는 못한 인물로 그려져 있으므로, 신동이라 총애를 받았으나, 정계에 나아가지 못하고 방랑 생활을 한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